

전주시 '동네복지 시범동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 개최

복지체계 완성도 높여 탄탄하게 구축

전주시가 마을과 주민 주도의 복지 체계인 동네복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사업의 완성을 도록 했다.

시는 15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동네복지 시범동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6기 중점 복지 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네복지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 기관인 전북 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최옥체)은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행복동네 만들기기 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이 사업은 국가정책인 '동복지하브화' 사업과 동네복지 를 병행 추진하거나, 동복지하브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네복지 특화사업을 결합해 추진하는 상호보완형 방식이다.

연구진은 "행복동네 만들기는 등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지원과 동 단위의 민관 복지인전망 구축을 주요 목표로 동 복지하브화 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동 차원의 복지지원 발굴 활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다른 한축에서는 '복지동네 만들기'를 통해 주민 전체의 복지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주시는 15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동네복지 시범동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선6기 중점 복지사업으로 추진중인 동네복지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사업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조성과 동네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동네복지 사업의 성과와 개선해야 할 점도 소개됐다.

연구진은 동네복지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들이 스스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혁신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정책사업으로 역설했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또 대표적인 사업성과로는 △복지조

직의 변화△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활발한 제공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복지활동 활성화 △동네 특화사업 및 공동체사업에 기여 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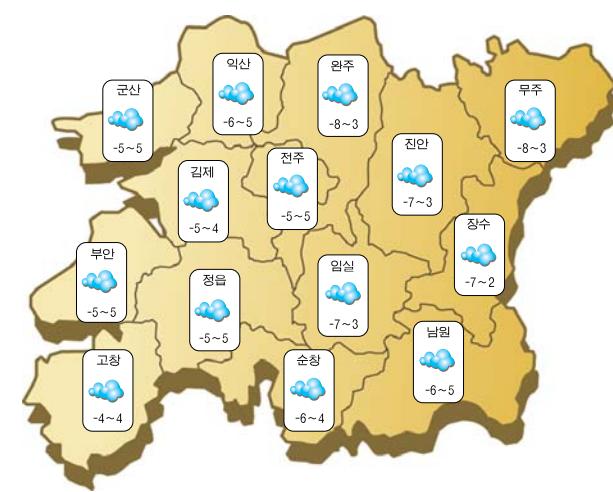
개선점으로는 △시와 동, 관련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견인할 컨트롤타워 구축 △동 주민센터의 사업주체역량 구축 △동 주민센터의 조성을 위한 민간 복지지원의 뒷받침 등을 제언했다.

이번에 실시한 동네복지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2017년도 동복지하브화 사업과 연계한 동네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12월 16일 금요일 해늘 07:35 | 해점 17:18 | 달뜰 04:30 | 달점 17:29

날씨 최저기온 -8~ -4도 최고기온 2~5도



전주시, 4분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개최

전주시가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 경찰서 등 유관기관·단체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5일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단체,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기관·단체들은 전주교육지원청과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각 기관 및 단체에서 4분기에 실시한 학교폭력예방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대책 지원위원회 전문

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를 제안했으며 원산·덕진경찰서는 △고입 선발고사 전·후 청소년선도·보호활동 △학교폭력예방을 찾이가는 범죄 예방교육 전개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친구관계 형성 프로그램 '어울림' △위기청소년 상담 멘토링 '동행' 등 을 한해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기관·단체들은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문화 활동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해은 기자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 6명 선정

2016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 수상자로 전주시일초 이희승 학생 등 6명이 선정됐다.

전리복도교육청은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 시상식을 오는 20일 오전 11시 교육감 접견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5회를 맞는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발명 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선발해 시상하는 상으로 전북 과학·발명 교육의 활성화 및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올 한해 동안 한국학생과학팀구립대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

/정해은 기자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시청 민원실로 이전 운영

채무문제 해결방안 다각적 검토 금융복지 서비스 확대 제공 계획

빈곤의 악순환과 빚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돋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이용이 편리해졌다.

전주시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악성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금융과 복지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 금융소외 계층의 실질적 지원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시청 민원실로 이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주도시혁신센터 3층에 문을 열었던 상담소가 시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방문을 통한 금융상담이 보다 편리해지고 상담소에 대해 알지

못했던 시민들도 시청 방문 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등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소는 소장과 상담사 등 3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해 △가계부채 관리상담(가계 손질과 지출 균형, 교육·주택·창업 등 목적자금 관리, 금융상품 상담 등) △채무자 및 출렁 체무조정상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연계, 서민금융지원안내) △시민 금융복지 교육(나만 모르는 금융의 진실 받기 어려운 보험 등) △법원신청서류 대행(공적구제제도 법원서류 작성 및 접수 대

행) △불법금융 예방상담(대부업체 거래시 유의사항) 등 서민들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금융복지 시민강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나서왔다. 상담소는 지난 3개월 동안 빚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203건, 방문 136건 등 총 33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 지원 7건, 복지제도 연계 안내 15건, 일자리 안내 3건, 금융기관의 체무조정 지원 6건, 저금리 대출전환 안내 53건 등을 처리했다.

상담소는 앞으로도 빚으로 고통 받

/김영재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